

#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 미 영\*\*

서울시립대학교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매개하는 구조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최소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여성결혼이민자 19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Process Macro(Model 4)를 활용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건강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신뢰, 참여, 네트워크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중에서도 의사소통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적 자본 가운데 신뢰와 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네트워크는 일부 제한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건강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자본 중 신뢰와 참여를 통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가 가족체계의 기능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 자원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가족관계 강화 지원,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자본 확장, 장기 정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건강성,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주저자: 이미영/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94

/E-mail: lmy2025@uos.ac.kr

## I. 서론

한국 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 인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통계청, 2022; 법무부, 2023).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의 중심에 있는 집단으로, 결혼을 매개로 한국 사회에 유입되어 새로운 가족체계와 사회 환경 속에서 적응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 가족 내 역할 적응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차별 경험, 제도적 접근의 제약 등 다양한 구조적·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어려움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영희, 2019; 조민정, 김수진, 2020). 여성결혼이민자는 일상생활 적응,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적응 과정의 결과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뿐 아니라 사회통합 수준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박미정, 엄명용, 2009).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사회통합 수준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학문적·실천적 중요성을 지닌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 형성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가족이다. 가족은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근접한 1차적 지지체제로 기능하며,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촉진하는 핵심 기반을 제공한다(권태연, 2018). 이러한 가족 기능의 질을 설명하는 개념이 가족건강성이다. 가족건강성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 의사소통, 역할 수행, 문제 해결 능력 등 가족체계의 기능적 수준을 의미하며,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촉진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Olson & Gorall, 2006; 박선영, 2018). 특히,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지지는 이민자의 문화적응

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lson & Gorall, 2006).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는 가족 내부 요인뿐 아니라 가족 외부의 사회적 관계망과 지역사회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권미조, 이준영, 최낙혁, 2018). 이러한 사회적 관계 자원을 설명하는 대표적 개념이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하는 신뢰, 네트워크, 사회참여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지지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소속감과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한다(Putnam, 2000). 또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Kawachi & Berkman, 2001; 정순돌, 성민현, 2012).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이주의 특성상 가족 중심의 제한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언어적·문화적 장벽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며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적응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박세희, 2019).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는 단일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체계와 사회적 관계망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Putnam, 2000). 가족건강성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원으로 작용하며, 이는 사회적 자본 형성과 확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Olson & Gorall, 2006). 즉, 가족 내에서 형성된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상호작용은 개인이 외부 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다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가족건강성과 삶

의 만족도 간의 관계 또는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검증하는 데 주로 초점을 두어 왔으며, 가족건강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어떠한 구조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매개하는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 형성 과정에서 가족체계와 사회적 관계망의 통합적 역할을 규명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 기반 개입과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증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개인이 자신의 삶 전반을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 지표로서, 심리학과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다(Diener, 2000). 이는 일시적인 감정 상태나 단기적 정서 반응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사회적·경제적·관계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평가를 의미한다(Pavot & Diener, 1993).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뿐 아니라 사회적 조건과 구조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삶의 만족도는 일반 인구집단보다 더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주 이후 언어와 문화의 차이, 사회적 배제 경험, 가족 내 역할 재조정, 경제적 불안정 등 다층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며, 이러한

경험은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적응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영희, 2019). 이와 같은 구조적·관계적 어려움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나이가 삶의 만족도는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를 넘어, 이민자가 사회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었는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개인 차원의 적응 결과일 뿐만 아니라, 가족 환경과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반의 통합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보다는 가족관계의 질, 사회적 지지 수준,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과 같은 관계적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은, 2020).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개인 중심의 접근을 넘어, 가족 및 사회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 2.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 원활한 의사소통,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 가치와 규범의 공유가 조화롭게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가족체계가 기능적으로 유지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핵심 개념이다(Olson & Gorall, 2006). 이는 가족이 단순한 생활 단위를 넘어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환경적 기반임을 전제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분석 틀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가족은 이주 이후 가장 밀접하게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공간이자 사회

적응 과정에서 핵심적인 지지체계로 기능하게 된다 (김연수, 2012).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는 배우자와 시댁 가족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체계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역할 기대의 불일치, 권력관계의 재구성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 내 관계의 질, 특히 의사소통 방식과 정서적 지지 수준은 문화적 스트레스를 완충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선영, 2018).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이 높은 경우 여성결혼이민자는 가족 내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외부 사회관계 형성과 지역사회 참여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송미숙, 2018).

선행연구들은 가족건강성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안정적인 가족관계는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며, 이러한 긍정적 심리 상태는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은희, 전현숙, 2020, 김영미, 한상훈, 2014).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은 사회적 관계망이 제한된 초기 정착 단계에서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일차적 환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건강성은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우영희, 하규수, 2015). 이러한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이해하고 증진하기 위해 가족건강성을 중심으로 한 분석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3.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축적하고 활용하는 비물질적 자원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 참여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Putnam, 2000). 이는 개인이 사회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획득되는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의 확보, 정보 접근성의 확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Richardson, Postmes & Stroebe, 2022).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사회과학 분야에서 체계화한 Putnam(1995)은 사회적 자본을 신뢰(Trust), 규범(Norms), 네트워크(Networks)와 같이 조정된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실천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신뢰(Trust), 네트워크(Networks), 참여(Participation), 규범(Norms)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신뢰(Trust)는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자신의 기대나 이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기대를 의미하며(Gambetta, 1998), 네트워크(Networks)는 개인이 속한 사회적 관계망으로서 이질적 집단 간의 연결을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기반을 의미한다(Woolcock, 2001). 참여(Participation)는 개인이 지역사회 활동이나 집단적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Levasser et al., 2010). 규범(Norms)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행동 규칙으로서 협력을 촉진하고 일탈 행동을 제약하는 기능을 수행하며(Coleman, 1988), 사회적 신뢰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요소로 이해된다. Putnam(1993)은 이러한 규범이 거래비용을 낮추고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유지·강화된다고 설명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이주 초기에는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기존 사회관계망에 접근하는데 제약받으며, 사회적 자본이 매우 제한적인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전성훈, 유수동, 2021). 이러한 제약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며, 일상생활 적응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주 이후 일정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지역사회 활동 참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이웃 및 지인과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된다(이영균, 2016).

이와 같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신뢰와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 소속감이 강화되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wachi & Berkman, 2001).

반면, 모든 네트워크가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제한적이거나 폐쇄적인 관계망의 경우 정보 접근의 제약이나 관계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일부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윤성준, 2013). 이러한 논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를 이해하는데 있어 사회적 자본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관계의 질과 참여의 성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4. 가족건강성,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가족건강성은 가족을 상호작용을 하는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는 가족체계이론에 이론적 기반을 둔다.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구성원 간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기능하며, 가족 내 상호작용의 질은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역량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Olson, 2000; 김경신, 2008).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건강성은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는 일차적 사회화 환경으로 기능한다.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신뢰, 상호성, 협력적 의사소통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적 자본 형성의 기초로 작용한다.

건강한 가족 환경에서 성장하거나 안정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개인은 타인에 대한 기본적 신뢰 수준이 높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효능감이 강화되어 지역사회 참여와 네트워크 확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가족 내 갈등이 지속되거나 의사소통이 단절되면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회피나 불신이 강화되어 사회적 자본 축적이 제한될 수 있다(김경신, 2008).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은 단순한 사회적 영역을 넘어 사회 적응과 사회적 연결의 매개 공간으로 기능한다. 배우자 및 시가(媳家)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와 안정적인 의사소통이 확보될수록, 지역사회 활동 참여와 이웃·공공기관과의 관계 형성이 촉진되며, 이는 신뢰·참여·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의 확대로 이어진다(박세희, 2019). 선행연구에서도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가족이 사회적 자본 형성의 '전이 기제(transfer mechanism)'로 작동함을 시사한다(정순돌, 성민현, 2012).

따라서 가족건강성은 개인의 사회적 자본을 직접적으로 형성하는 요인이기보다는, 사회적 관계 형성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관계적 토대를 제공하는 선행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통합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경험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가족건강성,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개별 요인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 속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형성하는 핵심 변인들이다. 특히, 가족건강성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적 자본 형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까지 확장되는 출발점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이경숙, 2011).

먼저 가족건강성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형성하는 기초적 환경 요인으로 작용하며, 가족 내에서 경

험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안정적인 의사소통, 정서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은 삶 전반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며(Olson & Gorall, 2006; Walsh, 2006), 가족건강성은 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안전감과 관계적 만족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동시에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자본 형성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안정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형성된 신뢰와 정서적 지지는 개인이 외부 사회관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심리적 여유와 자신감을 제공하며,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형성과 사회적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박선영, 2018). 다시 말해, 가족 내부에서 축적된 정서적·관계적 자원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전이되는 경로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은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참여 경험은 사회적 소속감을 강화하고,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Kawachi & Berkman, 2001; Putnam, 2000).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가족 내부의 긍정적 관계 경험이 삶의 만족도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변수로 이해될 수 있다.

종합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는 가족 내부 요인인 가족건강성과 가족 외부 요인인 사회적 자본이 상호 연계되고 상호작용을 하는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 설정의 논리적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은 이들의 삶은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사회적 자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은 이들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한 후 최소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 사회에 최소 3년 이상 거주한 여성결혼이민자로 한정하였다. 이는 일정 기간 이상의 정착 경험을 가진 집단을 분석함으로써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안정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관계망 형성은 일정 기간의 거주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2~3년 이상의 거주 기간이 초기 적응 단계를 넘어 사회적·심리적 적응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보고된다(Berry, 1997; 김이, 이해진, 2011). 연구대상자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 복지기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2024년 3월부터~4월 10일까지 모집하였으며, 비확률 유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중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주요 문항에 결측치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19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출신국은 베트남, 중국(조선족 포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대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평균 국내 거주기간은 약 6년 이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장기 정착 단계에 있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표본 특성은 국내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의 일반적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 가족건강성, 사회적 자본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른 생활, 복지, 안녕(well-being), 즉, 주관적이고, 종합적인 삶의 만족으로 정의하였다(양옥경, 1994). 삶의 만족도 척도는 양옥경(1994)이 개발한 ‘삶의 만족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중 여성결혼이민자에 관련된 문항으로, 총 32문항 중 “전반적인 현재 생활을 고려해 볼 때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한 곤란은 무엇인가?” 등 그 뜻을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5문항을 제외한 27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의식주 4문항, 사회관계 8문항(친구관계 3문항, 가족 및 친척관계 5문항), 건강(신체·정신) 3문항, 일, 경제 8문항, 여가활동 2문항, 자아존중감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일부 문항의 경우 전체 문항과의 방향성 일치를 위해 역 문항 처리하였다. 설문지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측정하는 27문항을 선택해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높음을 의미하며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15이다.

### 2) 가족건강성

유영주(2004)는 가족건강성에 대해 가족원 개개인이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친족 사회체계와도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생활해 가는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개발한 ‘가족의 건강도’ 도구를 기본으로 최정혜(2004)가 수정하고, 김혜신(2011)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4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총 22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좋음을 의미한다. 하부 영역은 가족유대 관련 영역(6문항), 의사소통 관련 영역(9문항), 가치공유 관련 영역(3문항), 문제해결능력 관련 영역(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설문지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16이다.

### 3)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임우석(2009)과 임중철(2013)이 사용한 척도를 바탕으로 김정화와 김난숙(2019)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소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내용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783으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신뢰도를 확

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4)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주요 구성 요인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영향변수 또는 통제변수로 설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독립변수인 가족건강성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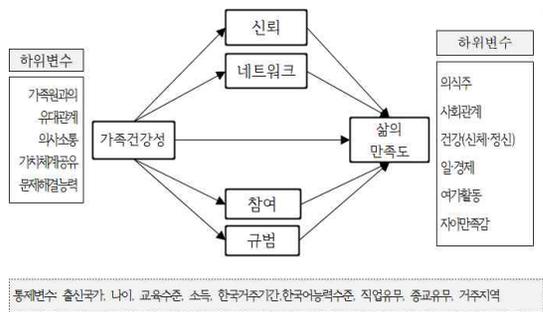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출신국가, 연령, 교육수준, 월 평균 소득은 연속변수로 사용했으며,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섯 집단으로 나누었다. 종교, 직업, 등은 없다 '0', 있다 '1'로, 거주지역은 도시 '0', 농촌 '1'로 더미 코딩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따른 통제변수 항목으로 출신국가와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을 추가하였다. 우선 출신국가로는 필리핀, 중국, 일본, 베트남, 기타로 구분하여 명목변수로 코딩하였고, 한국어 능력은 상, 중, 하의 세 수준으로 나누어 역시 명목변수로 처리하였다. 거주기간은 연속 변수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 3.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가족 내부 요인과 가족 외부 요인이 상호작용을 해 삶의 만족도를 형성한다는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건강성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안녕을 증진시켜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부 사회관계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참여,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자원 접근성을 높여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가족건강성 → 삶의 만족도의 직접 경로와 가족건강성 → 사회적 자본 → 삶의 만족도의 간접 경로를 동시에 포함하는 매개모형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목적과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 가족건강성,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측정도구를 선정하였다. 이후 설문 문항이 연구대상자의 이해 수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기 위해 문항 표현을 수정·보완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실시 이전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응답의 익명성 및 비밀 보장 원칙을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대면조사와 비대

면(온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셋째, 수집된 설문자료는 통계 분석에 앞서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쳤으며, 불성실 응답이나 결측치가 많은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족건강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 (2004)의 PROCESS Macro(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처리 및 분석을 위해 SPSS 26.0 과 Process Macro 43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검토하는 Cronbach's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에서는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먼저 분석하였는데, 유의 확률이 .05 보다 크면 등분산이 가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ANOVA 검정에서 집단들 간의 차이가 유의할 때 사후검정은 교육학이나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사람에 대한 접근이 빈번한 학문에서 많이 사용하며, Scheffe 방법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넷째, 주요 변수인 가족건강성 및 그 하위변수들, 삶의 만족도와 그 하위변수들, 사회적 자본과 그 하위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효과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효과를 분해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와 살펴보았다. 그 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 및 매개효과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 도구의 문항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 점수의 분산을 고려한,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였다. 신뢰도는 조사 도구의 정확성이나 엄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된 변수들이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는지 분석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계수 값이 .60 이상이면 측정도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조사 도구의 신뢰도 분석에 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독립변수인 가족건강성과 그 하위변수들, 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과 그 하위변수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와 그 하위변수들의 신뢰도는 모두 .60을 넘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항목	Cronbach's $\alpha$	표준화된 Cronbach's $\alpha$
삶의 만족도	전체	.821	.787
	의식주	.846	.744
	사회관계	.840	.832
	건강(신체·정신)	.609	.791
	일, 경제	.848	.794
	여가활동	.639	.716
가족 건강성	자아존중감	.686	.849
	전체	.716	.940
	가족원과의 유대	.849	.850
	의사소통	.699	.707
	가치체계공유	.713	.711
	문제해결능력	.773	.774

변수	항목	Cronbach's $\alpha$	표준화 된 Cronbach's $\alpha$
사회적 자본	전체	.783	.758
	신뢰	.661	.665
	네트워크	.772	.770
	참여	.821	.819
	규범	.762	.763

#### IV. 연구결과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본 집단의 구성과 성향을 유추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출신국가, 연령, 교육수준, 소득,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거주지역, 직업 및 종교 유무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빈도와 백분율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N)	비율(%)	
출신 국가	필리핀	15	7.6
	중국	51	25.8
	일본	20	10.1
	베트남	99	50.0
	기타	13	6.6
연령	20~30세	24	12.1
	31~35세	46	23.2
	36~40세	51	25.8
	41~45세	16	8.1
	45세 이상	61	31.3
교육수준	초졸	10	5.1
	중졸	28	14.1
	고졸	81	40.9
	대졸	69	34.8

구분	빈도(N)	비율(%)		
한국어 능력	기타	10	5.1%	
	상	83	41.9	
	중	30	15.2	
	하	85	42.9	
월	150만 원 이하	9	4.0	
	151~250만 원	14	7.1	
	256~350만 원	107	54.0	
	351~450만 원	65	32.8	
직업	450만 원 이상	4	2.0	
	있다	131	66.2	
	없다	67	33.8	
	종교	있다	52	26.3
없다		146	73.7	
거주 기간		0~5년	65	32.8
		6~10년	57	28.8
	11~15년	35	17.7	
	16~20년	17	8.6	
거주 지역	도시	175	88.4	
	농촌	23	11.6	
	계	198	100	

연구 참여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필리핀 15명(7.6%), 중국 51명(25.8%), 일본 20명(10.1%), 베트남 99명(50.0%), 기타 13명(6.6%)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살펴보면, 21~30세 24명(12.1%), 31~35세, 46명(23.2%), 36~40세 51명(25.8%), 41~45세 16명(16%), 45세 이상 61명(30.8%)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초졸 10명(5.1%), 중졸 28명(14.1%), 고졸 81명(40.9%), 대졸 69명(34.8%), 기타 10명(5.1%)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 수준을 살펴보면, 상 83명(41.9%), 중 30명(15.2%), 하 85명(42.9%)으로 나타났다. 월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150만 원 이하 9명(4.0%), 151~250만 원 14명(7.1%), 256~350만 원 107명(54.0%), 351~450만 원 65명(32.8%), 450만 원 이상 4명(2.0%)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5년 이하가 65명(32.8%), 6~10년 57명(28.8%), 11~15년 35

명(17.7%), 16~20년 17명(8.6%), 21년 이상 24명(12.1%)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있다가 131명(66.2%), 없다는 67명(33.8%)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있다가 52명(26.3%)이고, 없다가 146명(7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은, 도시 175명(88.4%), 농촌 23명(11.6%)으로 나타났다.

##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첫째, 가족건강성의 수준을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족원 간의 유대 3.514점 (SD=.866), ‘대화기술’ 3.496점(SD=.557), ‘가치체계공유’ 3.567점(SD=.841), ‘문제해결능력’ 3.225점(SD=.751)으로 나타나 가치체계 공유가 가장 높고, 가족원 간의 유대, 대화기술, 문제해결능력 순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를 살펴보면, 신뢰

2.818점(SD=.813), 네트워크 3.288점(SD=.731), 참여 3.147점(SD=.927), 규범 3.321점(SD=.934)으로 신뢰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셋째, 삶의 만족도의 하위변수를 살펴보면, 의식주 3.643점(SD=1.034), 사회관계 만족 3.792점(SD=.779), 건강 3.749점(SD=.538), 일·경제 3.610점(SD=.866), 여가활동 3.76점(SD=.812), 자아존중감 3.529점(SD=.829)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수 중 사회관계에 대한 만족이 가장 크고, 여가활동, 건강, 일·경제,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의 왜도 및 첨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왜도는 -.69 ~ .18, 첨도는 -1.01 ~ .04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왜도는 절대값 3, 첨도는 절대값 10 미만일 때, 정규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측변수들의 정규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변수	관찰변수	M	SD	왜도	첨도
삶의 만족도	1. 삶의 만족도	3.684	0.471	.358	-0.417
	1.1. 의식주	3.643	1.034	.621	-0.380
	1.2. 사회관계	3.792	0.779	.606	-0.151
	1.3. 건강(정신·신체)	3.749	0.538	.519	0.197
	1.4. 일·경제	3.610	0.866	-.643	-0.121
	1.5. 여가활동	3.760	0.812	-.787	0.795
	1.6. 자아존중감	3.529	0.829	-.460	-0.459
가족건강성	2. 가족건강성	3.461	0.450	-.366	-0.206
	2.1. 가족원간의유대	3.514	0.866	-.444	-0.442
	2.2. 대화기술	3.496	0.557	-.481	-0.258
	3.3. 가치체계공유	3.567	0.841	-.690	0.139
사회적 자본	4.4 문제해결능력	3.225	0.751	-.358	-0.154
	3. 사회적 자본	3.165	0.504	-.168	0.038
	3.1. 신뢰	2.818	0.813	.175	-0.837
	3.2. 네트워크	3.288	0.731	.605	0.038
	3.3. 참여	3.147	0.927	.121	-1.011
	3.4. 규범	3.321	0.934	.254	-0.450

\*  $p < .05$ , \*\*  $p < .01$ , \*\*\*  $p < .001$

### 3. 주요 변수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틀에서 변수 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였다. 이는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 간 등간, 비율 척도인 경우 변수들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는 방법이다. <표 4>는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를 정리한 결과이다.

가족건강성은 삶의 만족도에 양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자본과 그 하위변수인 신뢰, 네트워크, 참여, 규범의 상관관계에서 각각 양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과 그 하위변수인 신뢰, 네트워크, 참여, 규범은 삶의 만족도와 관계에서 일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첫째, 가족건강성과 삶의 만족도( $r=.350, p<.01$ ), 사회적 자본( $r=.317, p<.001$ )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 $r=.254, p<.001$ ), 참여( $r=.336, p<.001$ ), 규범( $r=.350, p<.05$ )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신뢰, 참여는 높게 나타났으나, 네트워크와 규범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인 신뢰( $r=.337, p<.01$ ), 네트워크( $r=.284, p<.01$ ), 참여( $r=.257, p<.01$ ), 규범( $r=.158, p<.05$ )과 삶의 만족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신뢰, 네트워크, 참여, 규범의 순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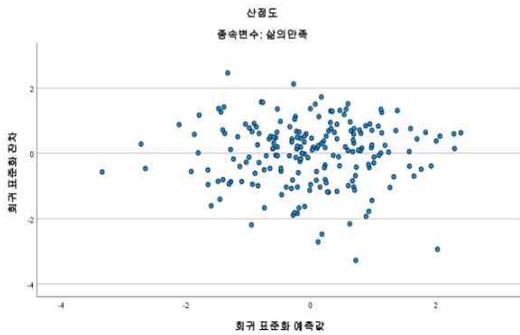
<표 4> 주요 변수의 상관분석

	가족건강성	사회적자본	신뢰	네트워크	참여	규범	삶의 만족도
가족건강성	1						
사회적 자본	.317**	1					
신뢰	.254**	.522**	1				
네트워크	.072	.720**	.345**	1			
참여	.336**	.563**	.018	.005	1		
규범	.152*	.558**	.025	.102	.005	1	
삶의 만족도	.350**	.434**	.337**	.284**	.257**	.158*	1

\*  $p<.05$ , \*\*  $p<.01$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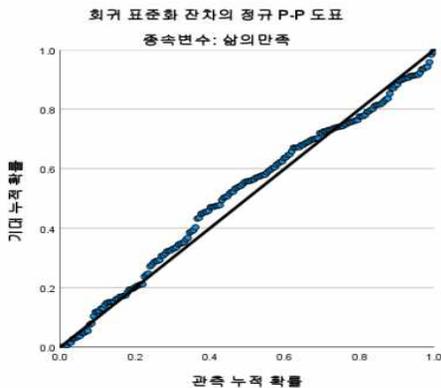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구하기에 앞서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토하였다. 특히, 잔차의 등분산성, 선형성 및 독립성이 만족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위수 대 분위 플롯(Q-Qplot)과 잔차의 산포도를 검토한 결과, 잔차의 등분산성과 선형성을 확인하였으며, 더빈-왓슨(Durbin-Watson) 검정을 통해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였다. 우선, 분위수 대 분위

수(Q-Q plot)을 살펴보면, 산점도의 분포가 일직선의 대각선상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그림 1]).



[그림 1] 산점도 분포

더불어 잔차의 산포도를 확인함으로써, 잔차의 선형성 및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잔차의 산포도를 확인한 결과, [그림 2]의 정규 P-P 도표에서 관측치가 대각선 주위에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잔차의 정규성 분포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 회귀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

선행연구 검토 등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설정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여 그 지수가 적합

<표 5> 가족건강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t	p	R <sup>2</sup>	F	p
상수	삶의 만족도	2.416	.245	9.876	.000	.122	27.276	.000***
가족건강성	삶의 만족도	.366	.070	5.233	.000***			

\*  $p < .05$ , \*\*  $p < .01$ , \*\*\*  $p < .001$

함을 판단하였으며 구조모형 내 경로의 경로계수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로 설정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설정한 가설 1부터 가설 4까지를 확인하고자 직접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 분석결과

##### 1)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의 가족건강성과 종속변수의 삶의 만족도와 그 하위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건강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366, p < .001$ ). 따라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5>).

##### 2)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자본 전체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352, t = 4.564, p < .001$ ). 이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자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짐을 의미한다. 해당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F = 10.1, p < .01$ )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신뢰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461, t=3.680, p<.001$ ). 즉, 가족 내 관계가 건강할수록 타인과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F=13.459, p<.001$ )이다.

둘째,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네트워크 요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참여에 매우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 = .691, t=4.990, p<.001$ ). 이는 가족기능이 건강할수록 지역사회 활동이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해짐을 의미한다. 해당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F=24.888, p<.001$ ).

다섯째,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인

규범 인식에도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316, t=2.158, p<.05$ ). 이는 가족 내에서 형성된 규칙과 가치가 사회적 규범 준수와 내면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자본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신뢰와 참여, 규범과 같은 질적·규범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트워크와 같이 관계의 양적 확장이나 구조적 측면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자본의 ‘깊이’에는 기여하지만, ‘범위’ 확장에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자본 및 하위변수 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t	p	R <sup>2</sup>	F	p
상수	사회적 자본	3.133	.355	7.304		10.1	.802	.001**
가족건강성		0.352	.100	4.564	.001*			
상수	신뢰	1.228	.436	2.818	.005	065	134.549	.000***
가족건강성		.461	.125	3.680	.000			
상수	네트워크	2.882	.404	7.129	.000	.005	1.024	.303
가족건강성		.117	.116	1.012	.313			
상수	참여	.754	.484	1.559	.120	.113	24.868	.000***
가족건강성		.691	.139	4.990	.000			
상수	규범	2.225	.512	4.348	.000	.023	4.656	.032*
가족건강성		.316	.147	2.158	.032			

\*  $p<.05$ , \*\*  $p<.01$ , \*\*\*  $p<.001$

### 3) 사회적 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에 사회적 자본과 그 하위변수, 종속변수를 삶의 만족도로 두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회귀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결과를 살펴

보면 첫째, 사회적 자본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0.450, p<.01$ ). 둘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 중 신뢰( $B=0.160, p<.001$ )와 네트워크( $B=0.121, p<.01$ )는 삶의만족도에 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인 참여( $B=0.204, p<.05$ )와 규범( $B=0.242, p<.01$ )은 삶의 만

족도의 하위변수인 의식주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인 참여( $B=0.281, p<.001$ )는 삶의 만족도의 하위변수의 사회관계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와 삶의 만족도의 건강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인 신뢰( $B=0.261, p<.001$ ), 네트워크( $B=0.378, p<.001$ )은 삶

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여섯째로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인 신뢰( $B=0.254, p<.001$ )와 네트워크( $B=0.2720, p<.01$ )는 여가활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인 신뢰( $B=0.373, p<.001$ )와 네트워크( $B=0.212, p<.01$ )는 삶의 만족도의 하위변수인 자아존중감과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 및 하위변수 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t	p	R <sup>2</sup>	F	p
상수	삶의 만족도	2.400	.193	12.450	.000	.188	45.442	.000***
사회적자본		0.450	.060	6.741	.001**			
상수	삶의 만족도	2.394	.191	12.521	.000	21.5	13.225	.001**
신뢰		0.160	.039	4.067	.000***			
네트워크		0.121	.044	2.745	.007**			
참여		0.130	.036	3.580	.000***			
규범		0.010	.036	0.275	.784			

\*  $p<.05$ , \*\*  $p<.01$ , \*\*\*  $p<.001$

#### 4)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들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족건강성을 독립변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인 신뢰, 네트워크, 참여, 규범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Process Macro 4.2 Model 4를 통해 매개효과와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앞선 분석으로 가족건강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한 것에 이어서 독립변수 가족건강성,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를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인 신뢰, 네트워크, 참여, 네

트워크로 두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네 가지 모형 중 규범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확인되었다. 크기순으로는 신뢰( $B=0.127, p<.01$ ), 네트워크( $B=0.123, p<.01$ ), 참여 ( $B=0.092, p<.05$ ) 순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에 가족건강성, 종속변수에 삶의 만족도, 매개변수에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인 신뢰, 네트워크, 참여, 규범을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가족건강성과 신뢰, 참여, 네트워크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규범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8>).

<표 8> 가족건강성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Estimate	S.E.	t	p	R <sup>2</sup>	F	P
(상수)		1.812	.253	6.894	.000			
가족건강성	삶의 만족도	.227	.072	3.140	.002*	.122	27.276	.000***
신뢰		.127	.040	3.173	.002*			
네트워크		.123	.043	2.864	.005*			
참여		.092	.037	2.462	.015*			
규범		.010	.035	0.290	.771			

\*  $p < .05$ , \*\*  $p < .01$ , \*\*\*  $p < .001$

매개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고, 매개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9>). 이를 분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하여 매개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Hayes, 2004). 구체적으로 부트스트래핑(Botstraping)

방식을 사용하였고 표본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한 번의 절차로 진행되어 기존 매개분석 방식으로 활용된 Baron & Kenny(1986)나 Sobel test와 같이 여러 단계를 절차를 걸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강점으로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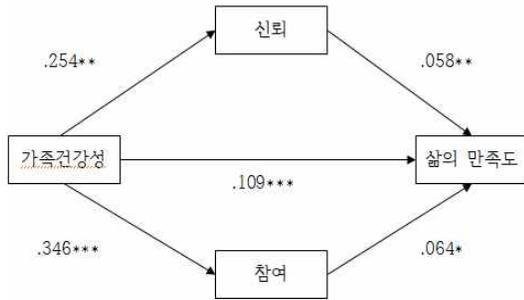
<표 9> 매개모형의 직접·간접 효과 분석 결과

구분	경로	Effect	S.E.	LLCI	ULCI
총 효과	가족건강성 삶의 만족도	.366	.070	.228	.504
직접 효과	가족건강성 → 삶의 만족도	.223	.072	.084	.369
	가족건강성 → 사회적 자본 → 삶의 만족도	.140	.0452	.060	.234
	가족건강성 → 신뢰 → 삶의 만족도	.058	.024	.017	.110
간접 효과	가족건강성 → 네트워크 → 삶의 만족도	.015	.018	-.015	.055
	가족건강성 → 참여 → 삶의 만족도	.064	.030	.011	.130
	가족건강성 → 규범 → 삶의 만족도	.003	.012	-.021	.030

<표 9>의 결과와 같이, 독립변수인 가족건강성과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직접효과( $B=.223$ ,  $p < .01$ )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전체의 매개효과( $B=.140$ ,  $p < .01$ )이며, 매개효과계수의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은 각각 .060, .023로 나타나, 정(+)적으로 유의한 것이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 중 신뢰의 매개효과는( $B=.58$ ,  $p < .001$ )으로 확인되었고 매개효과계수의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은 각각 .017, .110로 나타나, 정(+)적으로 유의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참여의 매개효과

는( $B=.064$ ,  $p < .05$ )를 나타냈으며, 매개효과계수의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은 각각 .011, .130로 나타나, 정(+)적으로 유의한 것이 확인되었다. Preacher와 Hayes (2004)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자본과 그 하위변수인 신뢰와 참여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네트워크와 규범의 매개효과에서 상한값과 하한값에 0을 포함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가족건강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과 그 하위변수인 신뢰와 참여는 매개효과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에서 있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그림 5))



[그림 5] 매개모형의 직접·간접 효과 분석 결과

### V. 결론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건강성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안정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가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삶 전반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능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핵심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Olson & Gorall, 2006; Walsh, 2006).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은 이주 이후 가장 밀접하게 경험하는 생활환경이라는 점에서, 가족건강성이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재확인하였다(박선영, 2018).

둘째,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가 안정적일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과 사회적

참여가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가족 내부에서 형성된 정서적 안정과 지지가 외부 사회관계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관계의 질이 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박선영, 2018).

셋째, 사회적 자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 중 신뢰와 참여는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참여 경험 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소속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의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Kawachi & Berkman, 2001; Putnam, 2000). 반면, 네트워크 요인은 일부 제한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의 양적 확대보다는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함을 시사하며, 폐쇄적이거나 부담이 되는 관계망이 오히려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의 지적과도 부합한다(윤성준, 2013).

넷째, 사회적 자본은 가족건강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건강성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가 가족 내부 요인과 가족 외부의 사회적 요인이 상호작용을 하는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며, 사회적 자본이 가족건강성과 삶의 만족도 간의 연결고리로 기능함을 시사한다(Kawachi & Berkman, 2001).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개입이 개인 단위 접근을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다층적 접근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자본 형성의 기초로

작용하고, 사회적 자본이 다시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매개 경로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가족기능 강화와 사회참여 촉진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지원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에 따라 정책적 측면에서는 가족 중심의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실천 현장에서는 가족체계 기반 개입과 사회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정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우선 비확률 표집 방식에 기반한 횡단적 연구 설계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 또한, 자기보고식 설문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나 기억 오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건강성,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 간의 인과적 관계를 더욱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출신국가별 거주지역별 비교·분석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질성을 반영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질적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양적 분석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가족관계의 맥락과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권태연 (2018). 기혼이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생태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산학협력학회지, 19(1), 239-250.

권미조, 이준영, 최낙혁 (2018). 사회적 통합과 삶의 만족도: 경기도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6(1), 339-363.

김영미, 한상훈 (2014). 중년기 남녀 가족기능 및 가족가치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 35(2), 79-100.

김영희 (2019).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2(2), 45-68.

김연수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및 문화적응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226-256.

김정화, 김난숙 (2019). 사회적 자본 척도의 수정 및 타당화 연구. 사회과학연구, 30(1), 55-78.

김혜신 (2011). 다문화가정 여성의 가족건강성과 적응에 관한 연구. 가족복지연구, 29(1), 101-126.

박미정, 엄명용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1-26.

박선영 (2018).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특성과 심리적 적응. 한국가족복지학, 23(4), 67-92.

박세희 (2019). 이민자의 사회적자본이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9(1), 166-199.

송미숙 (2018).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문화기술의융합, 4(2), 43-52.

신은희, 정현숙 (2020). 성인남녀의 개인심리적 가족 관계적 변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38(4), 23-43.

어은주, 유영주 (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도구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235-249.

우영희, 하규수 (2015). 국제결혼을 한 이주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산학협력학회지, 16(12), 8535-8549.

유승희, 김옥진 (2018).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12(1), 251-305.

유영주 (2004). 가족건강성 개념의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25.

윤성준 (2013).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관한 네트워크적 접근: Bonding vs. Bridging. e-비즈니스연구

- 구, 14(1), 203-224.
- 이경숙 (2011).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가족 기능의 영향 및 정책적 함의.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6(4), 243-252.
- 이영균, 이민자 (2016).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관계. *한국공공관리학보*, 30(3), 53-76.
- 이정은 (2020).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와 삶의 만족도. *사회복지정책*, 47(1), 139-166.
- 임우석 (2009).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43(2), 87-115.
- 임중철 (2013).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과 주민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연구*, 21(3), 33-59.
- 전성훈, 유수동 (2021). 결혼이민자의 문화적다양성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양시 결혼이민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5(3), 1-20.
- 정순돌, 성민현 (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보건사회연구*, 32(4), 249-272.
- 조민정, 김수진 (2020).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질. *다문화교육연구*, 13(1), 23-48.
- 통계청 (2022). 다문화 인구 통계. 통계청 보고서, 1-45.
- 법무부 (2023).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현황. 법무부 정책자료, 1-3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34.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0.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Gambetta, D. (1998).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Oxford: Blackwell, 1, 213-237.
- Hayes, A. F. (2004).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41(4), 377-401.
- Kawachi, I., & Berkman, L. F. (2001). Social tie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Urban Health*, 78(3), 458-467.
- Levasseur, M., Richard, L., Gauvin, L., & Raymond, (2010). Inventory and analysis of definitions of social participation. *Ageing & Society*, 30(2), 189-212.
- Olson, D. H., & Gorall, D. M. (2006). FACES IV and the circumplex model. *Journal of Family Therapy*, 28(3), 259-286.
- Pavot, W., & Diener, E.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2), 164-172.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Behavior Research Methods*, 36(4), 717-731.
-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4(13), 35-42.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1, 1-541.
- Walsh, F. (2006).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Guilford Press, 2, 1-420.

Richardson J, Postmes T, Stroebe K (2022)..

Social capital, identification and support: Scope for integration. *PLoS One*.17(4)

Woolcock, M. (2001). The place of social capital in understanding social and economic outcomes.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2(1), 11-17.

투고일자: 2025. 12. 29.

심사일차: 2026. 1. 27.

게재확정일자: 2026. 2. 9.

# The Impact of the Family Strength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Mi Young Lee

University of Seoul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 on the life satisfac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to identify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apital in this relationship.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98 married female immigrants who had resided in Korea for at least three years, and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were analyzed using the PROCESS Macro (Model 4). The results revealed several key findings. First, family strength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econd, family strength had a positive influence on social capital, including trust, participation, and networks, with family communication playing a prominent role. Third, among the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trust and participation positive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whereas networks demonstrated limited or partially negative effects. Fourth, trust and participation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life satisfaction. These findings empirically demonstrate that the life satisfac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s shaped by interactions between family systems and social relationships. This study has important practical implications, including the need to strengthen family relationships, expand community-based social capital, and to design policies that support the long-term settlement and stable integra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the host society.

*Key words* : Female marriage Immigrants, Family strength, Social capital, Life satisfaction